

부활 제 4 주일
성 소 주 일

기도서 293 면

제 1 독서 : 사도 13, 14, 43-52

제 2 독서 : 복시 7, 9, 14b-17

복 음 : 요한 10, 27-3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가야만 할 길 이라면 !」

조 정 오 신부



인생에는 3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가야만 할 길이 있으며,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고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現在)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가고 싶었던 이상(理想)대로의 길이며, 내가 꼭 걸어야만 할 인생행로(人生行路)일 때 그 인간은 행복(幸福)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순간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야만 할 길을 하느님께로부터 계시(提示)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 길이 내가 걷고 싶었고, 현재 내가 걷고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소주일(聖召主日)입니다.

하느님 백성(百姓)인 우리 모두는 성직 성소, 수도 성소, 독신 성소, 혼인 성소 중 어떤 길이든 한 가지의 길로는 불리어 집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성소이지요.

우리 잠깐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께서 초대(招待)하신 길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충실(充實)하게 걸었던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이 가야만 할 길이 아니었다면 목적지(目的地)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 갈아 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목자(牧者)의 목소리를 알아 들도록 귀를 기울여 거룩한 부르심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목자를 따라 수 있고, 목자를 따라 쟁가에 도착(到着)하여 영원(永遠)한 생명수(生命水)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무엇보다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불림받은 나는, 자녀로서의 나는, 위정자로서의 나는, 군인(軍人)으로서의 나는, 직장인(職場人)으로서의 나는, 하느님 백성(百姓)으로 초대되어진 나는, 목자로 불리워진 나는 정말로 부르자의 의향(意向)대로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소명의식(召命意識)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의 위치(位置)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으니까요. 또한 착한 양은 목자의 소리와 도적이냐 이리의 소리를 분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착한 목자입니까? 우리는 착한 양입니까? 성소주일인 오늘 우리 각자의 소명(召命)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이 땅에 착한 목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임실 주임신부)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 풍진 세상에

□ 대화 1

子—아버님, 개헌설이 왜 의식에 보도되었지요?
父—글쎄다. UB통신사가 있나보다.
子—어쨌든 우리는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믿어야겠지요?

父—그럼, 믿어야지.

□ 대화 2

子—아버님, 대도가 무슨 뜻인가요?
父—글쎄다, 일본 사람들 소설 제목 같구나. 대방, 대물...

子—왜 그 사람이 그렇게 화제꺼리죠?
父—아마 가난한 사람들 재물은 손대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 살림을 뛰치면서도 사람 목숨을 해치지 않아서 그럴까? 풍진 것을 저 혼자 다 쓰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훔치는 것은 나쁘지.

子—부잣집이나 이름있는 사람들 집을 털면 죄가 더 무거운가요?
父—글쎄다...

□ 대화 3

父—아들아, 너도 디스크를 좋아하니?
子—그럼요. 한참 열중하다 보면 다 잊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父—그렇게도 잊고 싶은게 많으냐?
子—그럼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현실에서 짝아웅 개질 때에는 어른들이 다시 쳐다 보여주세요. 마구 서둘러 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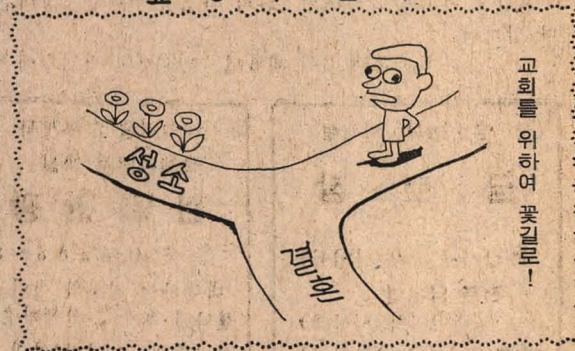
父—이런 대구 사고를 어떻게 보니?
子—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가 보아요. 파도기에다가, 아저는 젊은이들에게 주인의식이 모자라서 그럴거예요.

□ 대화 4

父—그렇겠지. 어찌 너희들에게만 탓을 돌리겠니.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겠지. 하느님과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시대의 징표를 읽으면서.

子—주님, 제 탓입니다.
父—형제여, 내 탓이오.

숲 정 이 산책



교회를 위하여 꽃길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제20차 성소주일 메시지 요약

부르심에 감사하며

윤 글레멘스(대전신대 4년)

“나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나 너는 땅 끝까지 구원의 등불이 되어라”(사도 13, 4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요한 10, 27).

1. 이는 우리가 성소주일로 지내는 부활 제 4 주일의 독서와 복음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 끝까지,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겹쳐진 인격에 맡겨진 사명이요 분부입니다.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 자신의 사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협력 즉 서품된 직무, 봉헌된 생활, 선교 생활에의 탁월한 소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실제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전적인 자기 봉헌 속에서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부합하는 특전입니다.

2. 성소주일의 거행은 본인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으며 제20차 성소주일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지난 20년 동안은 성소에 관한 영성적, 사목적 체험이 풍부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소** 성소는 그 자체의 독특한 사명을 위해 존재하므로 순전히 인간적인 어떤 이념과 혼동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성소** 교회에 온전히 봉사하는 성소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이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성소** 사제직에 대한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생활로써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사제양성 교령 2항). 이것은 모든 봉헌된 성소에 해당됩니다. **인격적인 부르심과 성소** 하느님께서 사랑의 자유로써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자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청소년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은 신뢰와 존중의 행동입니다.

4.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위해 일할 작오가 돼 있음을 아시오니,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섬길 성소자들이 증가하게 하시며 수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희생을 감내할 힘을 주소서. 당신은 또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십자가를 처음으로 지고 가신 분이오니,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본인은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도적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교황 재위 제 5년 1983년에 바티칸에서

4월이 흐르는 산하(山河)
복소리 울리던 풍남문에
빨마가지 오르고

피어린 순정이에
십자가 드높아라.

순교의 함성 일던 땅에
신앙의 향기 가득함이며!

한 생명 바치어
영원을 이루신 님들을 따라
부르심(聖召)에의 길……

젊은가슴 고이 살라
계단 앞에 향 피우고
생애를 오로지 하늘로 향함은
은총의 세월이여라.

가난한 고독과 슬픈 사랑을 지나면
작은 일에도 미소할 수 있는
마음의 밤이 꿈계 일구어 잠이여라.

주여!
감히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司祭)에의 길로 향한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날마다 당신 사랑으로 성숙해 가고
새로움, 순결, 열린 가슴이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 향하여 부끄러워 하지 않으며
이웃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는
순정이의 땀뻗은 후애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조금씩 당신을 배우고
달아가며

언제나 감사하면서
이 벱찬
성소(聖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수류 분당)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옆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판구)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 마춤·대며
웨딩드레스·약혼복·연
주복·부케·신부화장·
비디오 촬영

신 부 의 집

동서관동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 9 5 1
절 인 기(논지도)

L.P.G 판매, 시설

한국 가스 상사

신속배달, 무료점검
홍 ③ ④ 1457, 5928
주 이 안젤라

이땅에빛을



200주년 준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준비가 전국적으로, 또 교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본다.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전 국

우리 교회는 이미 1979년부터 200주년 기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개년 사무지표를 가정 성화의 해, 이웃 전교의 해, 본당 공동체의 해, 교구 공동체의 해, 전국 일치의 해로 설정하여 200주년을 뜻있게 기념하도록 하였다.

14개 교구 주교들로 구성된 주교단은 5명의 주교들을 선정하여 200주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보도록 하였으며, 그 조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위원장-윤 공희 대주교)

200주년에 관한 모든 업무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이 위원회 직속으로는 사무처와 중앙위원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는 4개 집행위원회가 있다.

4개 집행위원회

200주년 기념의 모든 업무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기구로써 그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신운동위원회(위원장-정 진석 주교)

200주년 기념에 생명과 열을 불어넣는 것이 이 위원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신앙운동과 계몽활동을 전개하여 교회 전체가 참으로 새신될 수 있도록 한다.

기념행사위원회(위원장-경 갑룡 주교)

신앙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특히 세계의 정신적 지주요, 우리 신앙의 최고 목사이신 교황님을 모시는 준비를 하는 부서이다.

사목회의위원회(위원장-박 정일 주교)

사목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현상을 분석, 검토하여 다가올 시대를 향한 선교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임무이다.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김 남수 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 교회의 200년의 결실이요, 새로운 200년을 향한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여섯 가지 기념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 ① 시성시복 운동-103위 순교복자의 시성과 함께 그 외에 순교자들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음
- ② 교회사 자료 정리-창립초기사(1779~1831) 자료정리
- ③ 200주년 성서 번역-성서 원전에 가까운 내용을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
- ④ 통일성가집 편찬
- ⑤ 맹인 개안 무료 수술-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상징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 본연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을 폭넓게 추구하고자 함
- ⑥ 북한 선교사업-공산치하에서 고통 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

교 구

현재 교구에서는 200주년 전국 기구와 발맞추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0주년 기념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무진을 4개 국-사무국, 관리국, 교육국, 홍보국-에 두고 있다. 지난 1월 200주년 전주교구 중앙위원회에서는 아래의 4개 분과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6면 도표 참조)

정 신 운 동

- ① 순교정신 양양: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강연회, 연구, 음악회
- ② 기도바치기 운동: 200주년 기도문, 묵주기도 등
- ③ 순정이 후보에 200주년 특집란 마련
- ④ 교구 성지 홍보 활동 강화

기 념 행 사

- ① 신앙대회(본당, 지구, 교구)
- ② 교리 경시 대회
- ③ 강연회, 전시회, 발표회
- ④ 도보 성지 순례

기 념 회 의

- ① 200주년 교회사를 회고하고 선교 300년대의 민족 복음화 목표 설정
- ② 오늘의 현실을 분석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 선교 대책 마련
- ③ 12개 의제를 지구별로 연구 토론(9월말까지)
- ④ 4/4분기 중에 전체 교구민(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하여 전국회의에 보고

기 념 사 업

- ① 전주 교구사 및 순교자전 편찬
- ② 기념 성당 건립(8개 본당)
중앙, 덕진, 노송동, 창인동, 월명동, 정읍, 김제, 금마
- ③ 성지 개발: 송암산 개발 정지 작업, 기념관 건립이 누갈다 본가 부지 매입
천호 여산 성지 개발
성지 안내자 양성, 배치
- ④ 시성 시복 추진 사업
- ⑤ 기금 조성 방안: 연중 1주 현금을 교구 기념사업에 제공
전시회(서예, 동양화, 서양화)
바자회(5개 시 중심)
특별현금(목지가 협조)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역배)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 이 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전주 시민약국
☎ 0009 · 3338
약사 김 병 의(마넬로)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간 이 복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챌 린 저		
	주 니 어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교구사 ②

여 명 기(黎明期) ①

조선왕조는 유교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정통사상으로 정착시켰다. 유교가 국시(國是)이며 나라를 보존할 유일한 힘이었으나 17세기 전반에 접어들자 그 구실을 잃기 시작했다. 그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민의 지주인 유교가 난세 구출에 맥이 없자 백성들은 구신절을 잃은 채 실의에 빠졌고 유교는 장승이 되었다. 더구나 피폐된 국토 위에 정치와 행정은 문란하고 지배층인 양반들의 권력투쟁, 관료들의 부정부패, 양반들의 민중수탈에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격앙되었다. 유교는 당파싸움과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유교는 원래 지배계급의 특권이념으로 민중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역할 밖에 못하였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상에서 한(恨)의 시름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중국문화와 유교사상 외의 어떤 문화 사상도 오랑케의 것으로 취급하던 폐쇄성에 회의와 비판이 일어났다. 이 민족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문화 사상이건 수용하고 본받으려는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봉건체제의 사회적 모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려고 천주교 교리를 들고 일어난 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한성과 경기도 일대의 초야에 몰려 학문에 몰두하던 소위 남인과 소장 유학자들이다. 그 사회에 천주교의 인간평등, 인간존엄성 등은 신분계급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구원이었다. 또한 한(恨)의 시름 속에 한숨을 몰아쉬며 사는 민중들에게 천주의 존재와 영혼불멸의 내세관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현실에 살 가치와 꿈을 갖게 하였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사회에서 신앙 대상의 변화는 사회구조와 통치기능의 변화를 주며 유교에 대치할 힘은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천주교 신앙을 들고 나선 것이다. 천주교가 교리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777년 주어사에서 권 철신을 주축으로 장 약전, 이 벽 등 그밖의 여러 학자들이 모인 강학회에서였다. 그 모임은 유교서적과 서양 신부들이 한문으로 쓴 철학, 수학, 종교에 관한 책을 읽고 토의하는 연구 모임이었다. 여기서 천주교 교리를 발견하여 연구하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했다. 이 강학회가 종교적인 교리연구의 모임으로 본격화한 것은 1784년 3월 말경 이 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부터이다. 이 승훈은 이 가환의 생질이고 정 약용의 매제로서 주어사 강학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천주교 교리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벽이 그를 선택한 것은 1783년 동지사행의 서장관으로 가는 아버지 이 동욱을 따라 북경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그는 1784년 정월 말경 북경의 북당(北堂)에서 양 등재(梁棟材, 그라몽)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다. 그의 귀국은 한국교회 설립의 동기가 되었는데 시작부터 전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구원의 소식은 이곳 전주에까지 들려 왔다.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던 호남의 토호요 향반인 유 항겸은 경기도 양근에 사는 권 일신을 찾아갔다. 권 일신은 출중한 학문과 가문 때문에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며 1784년 9월 이 벽과 함께 이 승훈에게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 사람으로 전교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유 항겸은 권 일신에게 1784~5년 사이에 아우구스띠노라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 권 일신의 생질너는 유 항겸의 큰머느리가 되었다. 그는 교향인 초남촌(현재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부락)에 귀향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교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무렵 진산땅의 윤 지충도 김 범우의 권고로 입교하였다. 그들의 입교가 한 무렵임은 이종사촌으로 서로가 평소 내왕이 있었고 초기 교회의 입교가 가족적인 전수(傳受)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년 만에 신자수는 1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교회가 구원의 은총의 표시인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있어야 했다. 1786년 봄 이 승훈을 우두머리로 평의회가 열렸는데 이 벽, 권 일신, 유 항겸을 주축으로 해서 교백성사 규칙을 협의하여 교백성사가 시작되었다. 또 겨울에는 10명이 이 승훈에게서 견진성사와 미사집전의 권한을 받았다. 여기서 소위 가성직제도 또는 가성사집행제도가 시작되었고 유 항겸은 신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승훈의 말에 의하면 주교는 없었다. 이러한 엄청난 가공할 사실은 유 항겸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유 항겸은 교리서를 통독하다가 이러한 성사집행이 무서운 독성죄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788년경 성사집행을 중단할 것을 이 승훈에게 다급하게 전달하는 편지를 띄웠다.

여기서 신부 영입운동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 교회의 밑사로 북경에 파견되었던 윤 유일은 1790년말 신주와 조상제사 금지령을 물고 왔다. 1791년초 윤 유일은 전주의 유 항겸을 방문하여 이 소식을 전달하자 누대의 신주를 모두 묘 옆에 묻었다. 이때 윤 지충도 함께 신주를 묻어 버렸다. 이 일이 있는 잠시 후 전라도 진산땅에서는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유교적 제사와 천주교의 전례의 충돌은 문화의 우월의식에서 빛어진 참상이었다.

모 집 공 고

당 업체는 섬유 수출 업체로써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성 근로 기능 및 전습사원을 모집합니다

영 화 섬 유 공 업 사

전주시 서서학동 281번지 전화 ⑥ 6 0 4 7
대 표 : 오 윤 길(벨라도)

남자 수도자 성소 상담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마리아회 수도원은 교육사업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121.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03-2 마리아회(마리아니스트) 수도원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③6016 ⑥6415
대표 이교섭(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근가, 철근 콘크리트판

□ 순교 인물전②

최초의 순교자 윤 지충

윤 지충(우옹) 바오로는 해남 윤씨 어초은파(漁樵隱派)의 22대 손으로 근세 가사문학의 대가인 고산 윤 선도의 6대손이며 증조부는 영조 때의 대화가인 윤 두서(斗緒)이다. 그는 한의학에 종사하는 아버지 경(憬 1725~1771)과 어머니 안동 권씨에게서 기묘년(1759) 진산(珍山) 현 계 중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큰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품행이 으뜸이었으며 글 공부에 열중해서 이웃의 칭송과 기대 속에 자라더니 25세(1783년)에 진사(進士)가 되자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갔다.

1784년 겨울 상경한 길에 명례동 중인 출신 김 범우 집을 방문하였다. 그는 거기서 천주실의(天主實義)와 칠극(七克) 두 권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천주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해하였고 충효의 근본이 천주의 명령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논리 정연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십계와 본죄의 뿌리인 칠죄종(七罪宗)을 극복하는 칠극의 실천 윤리가 덕을 닦는데 매우 용이하여 반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천주교에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두 권의 책을 빌려 시골집에 돌아와 배운 후 1785년 봄에 돌려주었다. 그후 3년 동안을 교리연구와 묵상에 골몰하였지만 심오한 교리의 뜻에 도달하기에는 갈증을 느꼈다.

철저한 그의 성격은 그 당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고종사촌 정 약전에게 찾아가 지도를 받고 1787년 세례를 받았다. 1784년 한국 교회가 설립되자 전 교의 불건은 무척게 변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부의 부재(不在)로 발생되는 성사생활의 오류와 그 시대 사회의 전통습속과 제사문제를 신앙생활과 병행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갈등이었다.

1790년말 한국교회의 밀사로 북경 주교에게 갔던 윤 유일은 신부 파견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조상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일은 미신행위가 된다는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금지령을 내린다는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소식을 전달했다. 이 금령은 신앙의 시험대가 되었고, 두고두교 박해의 원죄요, 국민들로부터 질서의 뿌리가 되었다. 박해의 첫 검화는 1791년 5월 윤 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8월 그름 장사를 치루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라는 유언과 교회에 순명하는 뜻으로 이종사촌 권 상연 야고보와 신주를 소각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것은 효(孝)와 예(禮)를 최고의 질서로 삼는 유교적 전통사회에 패륜행위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파멸 행위였다. 더구나 전통질서를 모범적으로 수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양반 신분으로는 막가는 행위였다. 장사를 치내고 난 후 친척과 친지들의 비난과 욕설은 빗발쳤으

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검색을 차린 그들은 일단 윤 지충은 한산으로 권 상연은 공주로 피신했다.

이 소식은 서울에 퍼졌고 조야(朝野)가 떠들썩하여 급기야 제포령이 내려졌다. 진산군수 신 사원(申史源)이 윤 지충의 삼촌 등(澄 1730~1797)을 볼모로 가두자 피신했던 두 사람은 10월 26일 진산군수에게 자수하였다. 군수는 가문의 명예와 조상에게 불효한 행동을 꾸짖으며 배교를 종용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다져주는 것이었다. “형벌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닦는 것은 효도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했다. 그는 영세하는 순간에 이미 증거자의 일생을 다짐하였다. “천주를 대부모로 모신 후 천주의 명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신심은 항상 뜨거웠다. 문조와 고문에 시달린 두 사람은 10월 30일 칫빤이 울자 전주 감영을 향하여 180여리의 순교길을 걸었다. 전주감사 정 민시(鄭民始) 역시 보명(保命)을 위한 배교를 권고하였다.

윤 지충은 공술(供述)과정에서 조상제사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최초로 밝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대부의 신주(神主)와 제사는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이니 사대부에게(유교사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교(신앙에) 죄를 얻고자 하지 않는다”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수(祭需)를 차리지 않는 이유도 밝혔다. “물질적인 양식이 육신의 음식인 것처럼 덕행은 영혼의 음식이다. 생전에 영혼이 술과 음식으로 양육되지 않았다면 죽은 후에는 더욱 그럴 수 없다. 효성이 지극해도 주무실 때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면 죽음의 긴 잠에 드신 분들에게 음식을 드림은 헛되고 거짓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를 허례허식으로 공경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전심갈력으로 수덕(修德)한 결과를 부모께 미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 참된 길ियो, 바른 도리이다.”

또 신주는 “그것이 목수가 만든 한갓 목편에 불과하며 위대하고 존경스런 부모의 칭호를 붙일 수는 없다. 내 혈육과 생명에 무관하고 영혼이 없으므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이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고 반정부 행위가 아니며, 가난한 양반이 제사의식을 간소화 한다고 엄한 책망을 당하지 않는다면 정교일치(政教一致) 사회가 나온 모순에 대한 정수리를 펼쳤다. 그의 처형은 양반 신분이기 때문에 당하는 특권이었다.

(다음 권 상연 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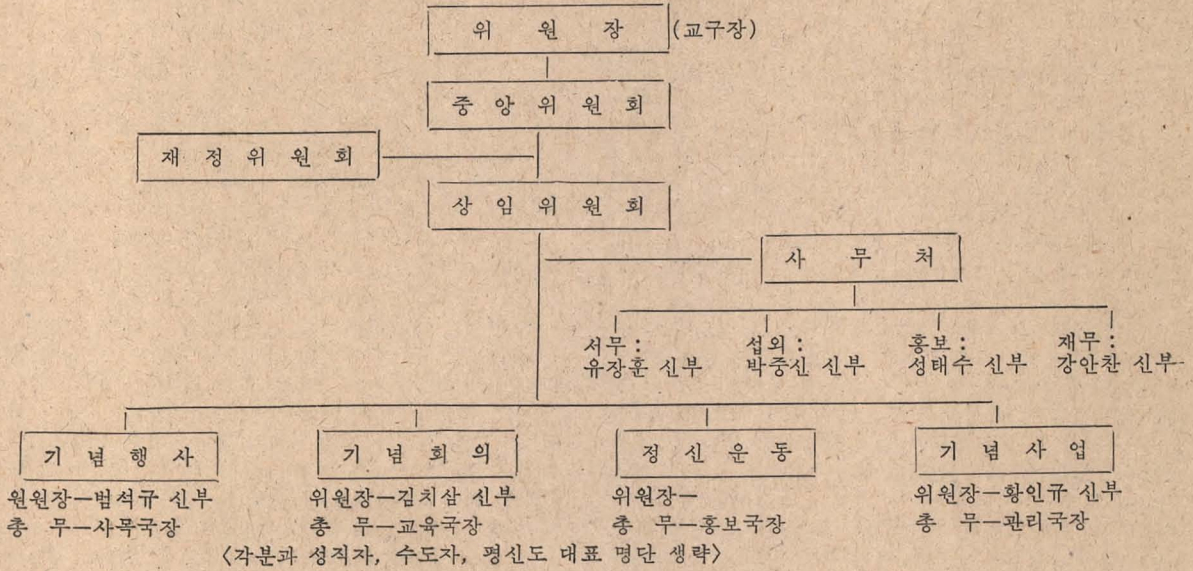
L.P.G 판매 시설(개업)
 군산
월명 가스 상사
 신속배달·무료점검
 ☎ 0626 06509
 주-엽 마 틸 다

※ 마구로...이젠 참치예요
 유진물산 전북대리점
숲정이 슈퍼마켓
 ☎ 3550 김원걸(시릴로)
 유진참치, 뒷감, 구이감,
 조림감, 부침감, 참치알,
 참치 내장
 ※ 참치 전문요식점 모집함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내 쇼 날 항공**
 전북지구 주재원 이 은 자(엘리사벳)
 전주시 서도농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4 2502·3 4471

200주년 전주교구 위원회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2개 지구 끝마쳐

지난 사순절부터 시작한 복자 손 선지 베드로의 유해를 모신 기도회는 전주지역을 끝냈고 상관, 임실, 남원 순창 본향을 끝냄으로써 현재 2개 지구를 끝낸 셈이 되었다.

200주년 기념을 위한 정신운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기도회에 많은 신자들이 200주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각 본당마다 성황을 이루어 200주년을 향한 우리 발걸음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함께 기도하고 순교정신을 되새기는 이 기도회는 9월 까지 계속되며 기도회 동안 바쳐진 특별헌금은 교구 성

지개발을 위하여 쓰여지게 된다.

제 4 지구와 5 지구의 기도회 성금은 다음과 같다.

- 제 4 지구 : 중앙-196,550원, 진동-365,300원, 서학동-341,940원, 노송동-288,365원, 덕진-343,350원, 숲정이-237,820원, 복자-320,010원, 파티마-205,180원

- 제 5 지구 : 상관-20,000원, 남원-67,010원, 임실-67,500원, 순창-43,000원
- 총합계 : 2,496,025원

사제 연수회

200주년 기념 교구 사목회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가톨릭센터에서는 50여명의 교구 신부님들이 모여 200주년 기념 교구 사목회의를 가졌다. 사목회의 의안 가운데 '교리교육'과 '성직자'의

안을 다룬 이번 연수회에서는 결합하여 교구 200주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재정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숲정이에 기재될 예정이다. 200주년에 대한 제반 사업은 이제 200주년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 개 원 ■

순주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뇨기과

진료시간 : 오전8시~오후8시

<구 역전 오거리 팔달로변>

전화 ① 1719

원장 최창기(루가)

전문의

최윤경 미용실

(유리안나)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부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네티지

서울주단

☎ ①0453 ②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교구 군중후원회 일선 위문

교구 군중후원회에서는 부활 다음 주일인 지난 10일 김 성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5명이 교구 출신 일선 군중 신부님들을 방문 위문하였다. 새벽 6시에 전주를 출발하여 수도군단(정 승현 신부님)에서 군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 후 1사단(김 희남 신부님)을 방문하여 최진방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문하고 이어 수도 기계화사단(유영도 신부님)을 방문한 뒤 새벽 3시에 전주로 돌아왔다. 이들은 세 분 신부님들께 회원들의 이름으로 각 20만원씩의 군중지원금을 전달하여 군중 신부님들과 일선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드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쁘게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군중신부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덕진본당에 까리따스 수녀회 분원 개설

지난 4월 20일 덕진본당에 까리따스 수녀회가 전주교구에는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김비비안나 수녀님과 강 올림피아 수녀님 두 분이 수고하시게 되었다. 오래 기다리던 수녀님들을 모신 덕진 본당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실 수녀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기도하며 우리 모두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보내드리자.

□ 복자 빈첸시오회 성지 개발 성금 기탁

불우한 형제들에게 말없는 사랑을 쉬지 않고 베풀어 오셨던 복자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이번에는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지개발을 위해 50만원의 성금을 보내 주셨다. 교회의 필요를 민감히 느끼시며 행동하시는 빈첸시오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군산 옥봉 신축금 봉헌한 재외국인 신자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 월명본당 옥봉성전 건립을 위해 군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계시는 외국인 신자분들께서 1백여 만원이 넘는 신축기금을 봉헌하셨다. 국경을 초월한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형제애를 재삼 깊이 느끼며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 한분 한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 김제·주현동 전신자 L, M 연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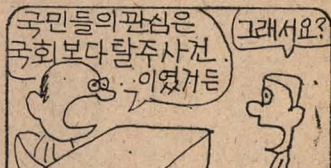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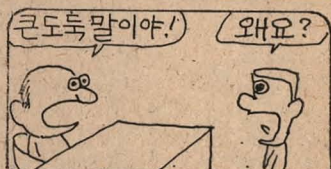
김제본당에서는 전공소신자 포함 전신자 레지오 연수회를 4월 10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꼬미시움과 김제 평화의 모후 꾸리아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고 전신자 레지오 가입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주현동 본당에서도 공소신자 포함 전신자 레지오 연수회를 주현동 자비의 모후 꾸리아와 꼬미시움 공동으로 전신자 1일 연수회를 지난 3월 6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5월 8일에는 정읍본당 전신자 레지오 연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수도 성소를 위한 여학생 및 젊은여성 주말 목사회(교구행사)

일시 : 5월 7일(토)~8일(일) 장소 : 가톨릭센터

요심이 (507) 김병오



재즈
클라식



상당수준의 교직원(체르니, 쇼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는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클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고중앙 사거리 전복은행 노송동지점 앞

김규완 형제, 제2회 개인전

—광주 미술관에서

우리 교구보 숲정이의 제호를 쓴 치당 김규완(癡堂 金圭浣, 그레고리오) 형제가 광주에서 오는 4월 21일~27일까지 작품 발표회(書展)를 갖는다. 전주 성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꾸르실료 임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현재는 광주 사레지오 여고에 봉직(교감)하며 시간을 쪼개어 작품 활동을 하는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박수를 보내자.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종순(베드로)

특수안경, 표시없는 다춧점 조절렌즈, 가벼운 렌즈, 얇은 렌즈를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1. 장례 예절 교육: 24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센터, 참가비-2,000원
2. 공동체 목상회(기초코스): 5월 3일~6일, 접수순 40명, 참가비-2만원, 대상자-제한 없음
3. 제1지구 울드레아: 김계, 부안, 신태인 분당, 30일<토>, 장소-김계 천주교회
4. 제2지구 성령 강연회: 30일<토> 오후 1시~9시, 장소-돈울동 성당, 참가비-2천원,
5. 강사-조이·니콜스(호주)
6. 제2지구 울드레아: 5월 1일 오후 2시, 장소-일명동 성당
7. 월요 성서: 5월부터 금요일로 옮김, 일시-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과목-창세기 ※ 매월마다 수강자 모집함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희
수석보좌 신부 안기현
보좌 신부 김민영
사도 회장 김인일

1. 주일학교 소풍: 5월 1일, 장소-전지삼(폐지골)
2. 주일성월 기도: 5월 1일부터 매일 저녁미사 후
3. 견진안내: 5월 22일, 교리-5월 17일~21일
4. 성전신축 헌금: 신일해 주신 분: 1만원-이영만, 2만원-정해석, 3만원-김준우, 4만원-김민영, 5만원-김영준, 6만원-김영준, 7만원-김영준, 8만원-김영준, 9만원-김영준, 10만원-김영준, 11만원-김영준, 12만원-김영준, 13만원-김영준, 14만원-김영준, 15만원-김영준, 16만원-김영준, 17만원-김영준, 18만원-김영준, 19만원-김영준, 20만원-김영준, 21만원-김영준, 22만원-김영준, 23만원-김영준, 24만원-김영준, 25만원-김영준, 26만원-김영준, 27만원-김영준, 28만원-김영준, 29만원-김영준, 30만원-김영준, 31만원-김영준, 32만원-김영준, 33만원-김영준, 34만원-김영준, 35만원-김영준, 36만원-김영준, 37만원-김영준, 38만원-김영준, 39만원-김영준, 40만원-김영준, 41만원-김영준, 42만원-김영준, 43만원-김영준, 44만원-김영준, 45만원-김영준, 46만원-김영준, 47만원-김영준, 48만원-김영준, 49만원-김영준, 50만원-김영준, 51만원-김영준, 52만원-김영준, 53만원-김영준, 54만원-김영준, 55만원-김영준, 56만원-김영준, 57만원-김영준, 58만원-김영준, 59만원-김영준, 60만원-김영준, 61만원-김영준, 62만원-김영준, 63만원-김영준, 64만원-김영준, 65만원-김영준, 66만원-김영준, 67만원-김영준, 68만원-김영준, 69만원-김영준, 70만원-김영준, 71만원-김영준, 72만원-김영준, 73만원-김영준, 74만원-김영준, 75만원-김영준, 76만원-김영준, 77만원-김영준, 78만원-김영준, 79만원-김영준, 80만원-김영준, 81만원-김영준, 82만원-김영준, 83만원-김영준, 84만원-김영준, 85만원-김영준, 86만원-김영준, 87만원-김영준, 88만원-김영준, 89만원-김영준, 90만원-김영준, 91만원-김영준, 92만원-김영준, 93만원-김영준, 94만원-김영준, 95만원-김영준, 96만원-김영준, 97만원-김영준, 98만원-김영준, 99만원-김영준, 100만원-김영준

□ 지난주 봉헌금: 845,546원 교무금: 755,300원
김사헌금: 전액 (5,000원)

(노총동)

신부 0969번
수.사 7032번

주임 신부 김동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구판장 개설: 성전 신축기금 마련 위해, 생활필수품 수품
 2. 직원 증원: 최수신나, 이교무금 수납, 미사에물접시
 3. 사제양성 후원자금: 아지 안내신분 숙히 내주세요
 4. 교무금 납부의 날: 교무금은 항상 매월 분납합니다
 5. 자모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아파트 소식: 성모회 월례회때 각부서별 일년 계획
- 안 발표 ①교육부-전회원 교육과 주일학교의 교육
②전례부-성가 및 독서선정 ③성물부-성물 보급,
④판대부-성당전립 위한 판대일 14일부터 판매
참가금(5,000원), 미역大(2,500원), 미역小(1,500원)
가빠회 첫모임: 30일 오후 8시, 인쇄세탁소
가톨릭 성서모임 모집: 5월부터 성서연구 하실 분은
성모회 교육부 진요안나 자매에게 신청 바람
- ☆ 꽃 봉헌 파 시계 기증하신 분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47,650원 아파트봉헌: 48,240원
교무금: 631,000원

(떡집)

전화 0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수녀님 부임: 김바비안나·강울림피아, 환영합니다
 2. 분당 정원 조성(나무 이식)작업: 오늘 미사후
 3. 성령세미나(5월 10~13일 밤 7시30~10시)와 견진(15일) 신청: 금주대에, 회비(3000원)
 4. 예비신자 환영식: 29일 밤 8시, 부녀-화요일 오전, 직장 교리 수강신청: 28일까지, 부녀-화요일 오전, 직장 인-금요일 밤, 일반-주일미사 후
 5. 부녀회 성지순례: 5월 4일 미리내
 6. 진복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7.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연습: 부모님들 관심을...
- 지난주 봉헌금: 357,835원 교무금: 400,500원

(복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5월1일(주일) 오후 3시, 3시 어린이 미사-2시에
3. 토끼저금통 속히 내주세요
4. 주일학교 소풍: 오늘 9시 미사후, 안행사

5. 성소주일(오늘) 특별헌금 있음
 6. 혼배자들은 1개월전에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7. 전화 및 주소가 변경되신 분: 사무실에 연락 바람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상인 ②정운주 봉헌-독서하신 분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천진 ②신재마 봉헌-독서하신 분
- 지난주 봉헌금: 506,070원

(서학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함형수

1. 사제양성 후원회(회비 5만원): 회원 모집합니다 가입한분-진성복, 김한기, 선복사, 임재진, 유순이
 2. 오늘은 성소주일: 성직자, 수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유아세례: 매월 첫째주인 공식미사 전
 4. 중·고생 체육대회: 5월 1일, 상관에서
 5. 다음주 전례대회: 독서-①차상일 ②신영창 신자들의 기도-김한기·강복남·이정빈
- 지난주 봉헌금: 312,370원 교무금: 341,600원

(숲정이)

전화 0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09567 사도 회장 김수길

1. 성신 강림전 대강연회
○매-4월 24일(일), ○곳-숲정이 성당
○접수-13:00~14:00(좌석 600석 선착순)
○강연①-14:00~18:30
○강사-조이·니콜스(Joy Nichols)와 로버트·니콜스(Robert Nichols)이태구, 이인복 교수
○사회-정주복 선생, ○통역-이태구 선생
○저녁식사: 18:30~19:30, 신청은 접수시
○강연②: 19:30~22:00(병자를 위한 기도 있음)
○강사-이태구(프란치스코), 이인복(마리아) 교수
○감사미사-22:00~22:40(헌금 있음)
○참가비-2천원, ○준비물-성서, 공동체 참가집
 2. 오늘미사: 공식미사-10:00, 혼인미사-11:30
 3. 첫 영성체 교리: 매주 화~금요일 16:00
 4. 성소주일: 오늘 특별헌금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64,472원 교무금: 404,700원

(전동)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성가절회: 5월 3일 12시-사무실
 5.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1구과 1천원
 6. 중·고생 교리: 학생미사 후
 7. 주일학교 소풍: 5월 1일 오후 2시
 8. 레지오 아치에스: 30일 9시 침합 단원 및 협조단원 시상자 전원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669,150원 교무금: 442,700원

(파티마)

신부 00915

주임신부 김병일
수녀 0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예비자 교리: 오늘부터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3. 제4차 민족 복음화 대회: 대전 공설운동장, 5월5일
 4. 성소주일: 남고생-대전전대, 여고생-수녀원
 5. 중·고등학생: 토요미사와 쉼의합 적극 참여 바람
 6. 어린이 교리반, 어린이 미사: 자녀들 보내주세요
 7. 꾸리아 야미미사 및 옥외행사 계획: 다음주 간부님들 만들어 주십시오
 8. 축! 혼배: 오늘 1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211,375원 교무금: 281,000원